‘화합의 법석’ 범불교도대회 열린다

10월 20일 오후 2시 부산시민공원 잔디마당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불교 단합과 위상을 위해 부산불교가 들썩이고 있다. 사찰에는 불교문화축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불자들은 행사를 통해 불교 위상을 높일 것을 기대하며 신바람 나는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박수관)는 10월 20일 오후 2시 부산시민공원 잔디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불교문화대축제’를 개최한다. 불교문화축제는 부산에서 처음 열리는 범불교도대회로 오직 화합과 불교 위상 고취를 위해 불도 부산이 힘을 모으는 행사다.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은 부산 범불교도대회의 개최 취지를 ‘불교 화합’으로 꼽았다. ‘화합만이 불교 위상의 밑거름이자 해답’이란 간절한 서원으로 여는 행사란 설명이다.

박수관 회장은 “불교문화축제는 부산 전체가 불도(佛都)가 되는 장엄한 예불 현장이 될 것”이라며 “모든 종단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잔치이자 단합의 현장으로 부산에서는 처음 열리는 범불교도대회”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불교문화축제에는 통도사, 해인사, 범어사, 쌍계사 등 부산경남에 위치한 조계종 교구본사와 삼광사를 비롯한 천태종, 태고종, 진각종, 법연종, 총지종, 법화종 등 전국의 사찰에서 수행자들이 동참하며, 10만 명의 불자가 자리할 예정이다. 스님들과 불자들은 시민들에게 불교의 저력을 보여주며 불교

전국 각 종단 사찰 스님 참석

10만 불자 운집해 화합 기려

시민 위한 축제 자비나눔 기획

“부산 전체가 장엄한 예불 현장”

선언문을 채택해 앞으로 나아갈 불교 역할과 화합을 강조하고 불교 중흥을 위해 기도한다.

박수관 회장은 “백고좌법회를 재현하고 스님들이 예경 받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시민들에게 보여 줄 것”이라며 “스님들이 삼보로서 바르게 존경받는 사회를 꿈꾼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불교문화축제에서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진신사리 이운식을 진행한다. 진신사리는 강원도 건봉사 치아사리다. 이운식은 행사 가운데 가장 주목 받는 일정으로 식전공연 이후 첫 순서를 장식한다. 이운식은 10만 불자들의 정근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화려한 이운행렬이 30분에 걸쳐 진행되며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불교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는 불교문화축제가 10월 2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린다. 박수관 회장이 행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행사는 △육법공양 △진신사리 헌화공양 △삼귀의 및 반야심경 △고불문 △공로패 전달 △개회선언 △봉행사 △봉축사 △격려사 △축사 △대회사 △법어 △불교중흥 기원 △공지사항 및 폐회선언으로 마무리된다. 특히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는 자비나눔을 위해 1억원에 해당하는 백미 10kg 3500포를 불교복지시설과 부산진구, 금정구, 사상구 등 5개구에 전달한다.

시민들을 위한 축제 무대도 마련된다. 무대에는 가수 송가인, 모모랜드, 더 보이즈가 출연한다. 부대행사는 염주 만들기, 도자기 체험, 다도체험, 탁본, 법고, 불무도 시연 등 불교 전통문화체험의 장으로 이뤄진다.

박수관 회장은 “행사를 위해 조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범불교도대회에서 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고 화합을 결의하자”며 참여를 독려했다.

삼광사 “천태종 역대조사 원력 되새기자”

신도회 창립 50주년 맞아

조사전 건립, 말사 중 처음

한국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조사의 불교중흥 원력이 담긴 도량 삼광사가 ‘조사전’을 기공했다.

조사전 기공식은 신도회 50주년을 맞아 상월원각조사의 원력을 되새기고 새로운 100년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세운)는 9월 25일 경내 조사전 신축 부지에서 기공식을 봉행했다. 삼광사 조사전은 천태종 말사 가운데 처음으로 건립되며 2018년 4월 조사전 불사 계획을 수립, 같은 해 6월 28일 본산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올해 9월 부산진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연면적 280㎡(85평) 규모로 건립되며, 높이는 18m다. 주초석은 화강석에 원형기둥과 다포양식으로



부산 천태종 삼광사는 9월 25일 경내 조사전 신축 부지에서 기공식을 봉행했다.

건립된다.

기공식은 △테이프 커팅 △시삽 △개회선언 △삼귀의 △찬불가 △반야심경 △상월원각조사 법어봉독 △국운융창기원 △경과보고 △개회사 △청법가 △삼정례 △입정 △법어 △치사 △축사 △축가 △내빈소개 △관음정진 △발원문 낭독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소백산에 세우셨던 대조사님 원력이 신심 깊은 불자들의 기도로 하얀 연꽃 백양산에 거듭 피어올랐다”며 “가르침을 따르는 천태 종도들이 거룩한 스승님을 가슴 깊이 모시고자 정성 모으고, 고귀한 인연과 감사함을 되새기는 건립 불사를 서원했다”고 격려했다.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은 “삼광사 불자님이 개산 50주년을 맞아 조사전 건립의 원력을 더했으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대조사님의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원력을 받들어 정진 또 정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첫 삽을 뜨는 대조사전 건립불사는 지난 50년 삼광사가 걸어온 정법의 길을 새로운 50년, 100년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또 하나의 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공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문덕 스님, 종의회의장 도원 스님, 감사원장 진덕 스님을 비롯해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오거돈 부산시장,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김희근 삼광사 신도회장 등 승·재가내빈 50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화엄사 중흥조’ 선양사업 본격화

화엄사, 도광·도천 대종사 주제 학술세미나

화엄사 중흥조 도광·도천 스님의 사상을 이어가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9월 21일 경내 화엄원에서 ‘화엄산문을 다시 열다’라는 주제로 근·현대 화엄사의 중흥조인 도광 스님(1922~1984), 도천 스님(1910~2011)에 대한 학술발표회를 열고, 두 스님의 선양사업과 계승사업을 진행했다.

세미나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의 기조발제 ‘도광·도천 대종사 선양사업의 방향과 화엄선재불교사회연구소의 설립 목적’을 시작으로 △화엄사의 한국불교사적 위상(정병삼 숙명여대 명예교수) △근현대 화엄사와 도광·도천 대종사의 불사(이종수 순천대 교수) △근대 화엄사의 화엄한 전승과 도광·도천의 화엄행(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김관태 연구원(화엄선재불교사회연구소)의 종합논평이 진행됐다.

주지 덕문 스님은 기조발제를 통해 “두 스님의 역할과 역사적 위상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은 두 스님이 은자처럼 묵묵히 수행과 실천을 이어오셨기 때문”이라며 “승가복지의 정립과 구현, 수행환경 조성과 도제 양성, 포교 전략 수립 및 포교활동 강화 등의 사업을 화엄선재불교사회연구소 설립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석길암 교수는 “화엄사는 1969년부터 화엄사에 주석하게 된 용성, 동헌, 도광으로 이어지는 흐름과 경허, 수월, 묵언, 도천 스님으로 이어지는 두 법맥이 화합한 화엄문도회의 노력에 의해 중창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일구고 있다”며 “두 스님의 실천행은 화엄의 보살행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검단선사 자비행 기린 문화축제

고창 선운사, 제12회 선운문화제 雨中에도 성료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선운문화제가 열렸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9월 21일 고창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인 선운문화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선운문화제는 보은염이운식을 시작으로 시화전 시상식, 부처님과 역대 조사를 기리는 헌다례, 산사음악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선운문화제에는 선운사 한주 법현 스님, 고창종합사회복지관장 대원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내장사 주지 도완 스님 등 본말사 스님들과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군의회 의장, 사등마을 주민, 관광객 등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사등마을 주민들은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선사가 양민들의 생계를 위해 소금



굽는 법을 가르친 은혜에 보답하고자 선운사에 소금을 공양하는 보은염 이운식을 재현했다. 하루 종일 내린 비로 인해 만세루서 진행된 산사음악회는 도신 스님, 앙상블클라비어,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국악소녀 김태연, 가수 아이비 등이 출연해 비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지킨 300여 관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통도사 성보박물관 ‘상수동행’ 기증전

특별기념전 10월 27일까지

통도사 성보박물관(관장 송천)은 특별전시 ‘상수동행’을 9월 28일~10월 27일 1층 월저실과 2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유물을 기증한 월저 김진조 선생의 상수(上壽), 100세를 축하하고 존경을 표현하고자 마련했다.

전시 대표 유물은 강세황(1713~1791)의 작품 ‘이제묘도(夷齊廟圖)’와 천경자(1924~2015)의 ‘타지마할’이다. 이제묘도는 중국의 유명한 백이와 숙제의 고사를 표현하며 공간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기증문화에 대한 인식 확대를 꾀하고 나아가 기증 유물을 통해 기증자와 세상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성보박물관은 또 곡성 도림사 괘불탱화를 2020년 3월 29일까지 박물관 1층 괘불전에서 전시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몸·마음·쉼’ 생명존중·자살예방 프로젝트

명상으로 함께하는 ‘2019 생명살림 법회’

불교상담개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인 명상으로 함께하는 ‘2019 생명살림 법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10월 13일(일) 11시
◈ 장 소 : 부산 범어사
◈ 내 용 : 명상을 활용한 생명살림 법회
◈ 참가대상 : 삶의 고통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고 싶은 누구나
◈ 참 가 비 : 무료
◈ 문 의 : 02-737-7378, http://www.kbcd.org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